

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 258호 (2014-37) 발행일 : 2014. 09. 19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가족변화양상과 정책함의

가족변화는 산업화 및 도시화, 가족가치관 약화, 고령화 및 저출산, 만혼화 및 혼
인기피, 이혼율 증대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야기됨

가족구조는 1인가구 및 1~2세대 중심의 핵가족화 형태에 집중, 가족주기변화
로 젊은 부부의 신혼기간은 단축되고 노인부부 동거기간 및 성인자녀 독립시기
연장, 부부 간 양성평등적 역할관 증가로 가족 내 부부역할 변화 예고, 가족부양
관의 사회화에 따른 가족부양 기능 약화가 예상됨



김유경
사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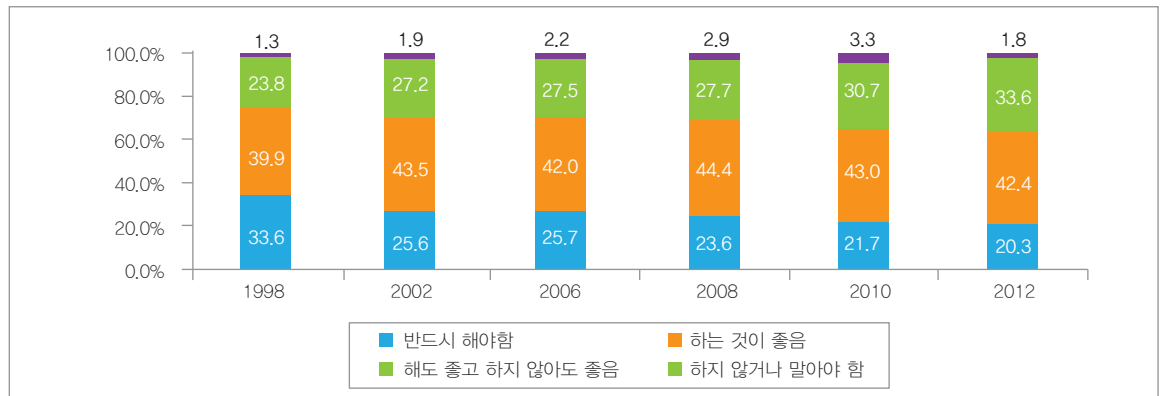
1. 가족가치관 및 환경변화

- 혼인가치관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필수적인 가치에서 ‘하는 것이 좋다’라는 선택적 가치로 변화됨

○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은 33.6%(1998년)에서 20.3%(2012년)로 감소, 하는 것이 좋다는 39.9%
에서 42.4%로 증가

[그림 1] 혼인가치관의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1998~2012), 사회조사 결과

■ 자녀가치관은 반드시 가져야 한다에서 반드시 가질 필요 없다는 태도로 전환되며 소자녀관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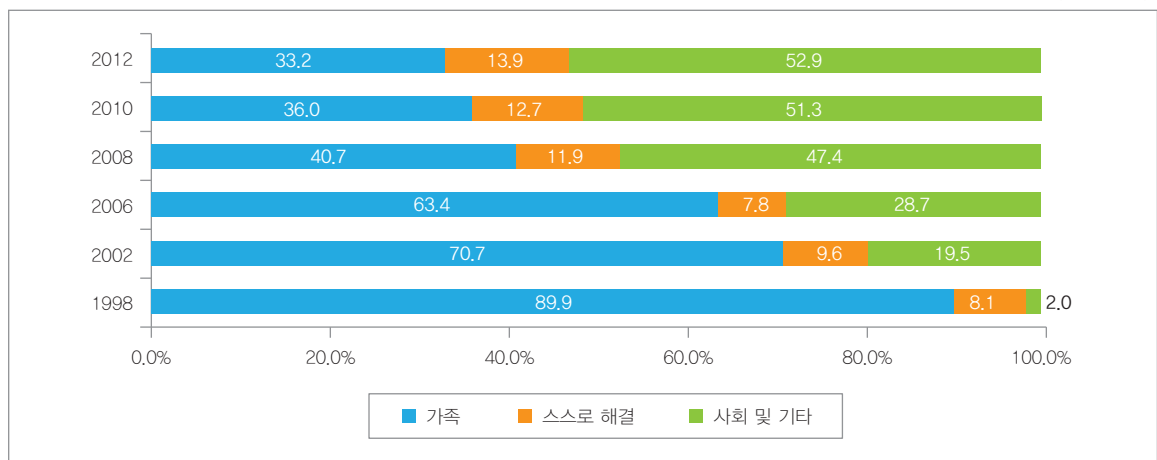
○ 자녀는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비율이 73.7%(1997년)에서 46.3%(2012년)로 감소,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는 26.0%에서 53.5%로 증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¹⁾²⁾

■ 부모부양관은 가족부양 의식에서 지속적으로 사회부양 의식으로 변화됨

○ 부모부양은 가족책임이 89.9%(1998년)에서 33.2%(2012년)로 감소한데 비해, 스스로 해결은 8.1%에서 13.9%로, 사회책임은 2.0%에서 52.9%로 큰 폭으로 증가

[그림 2] 부모부양관의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1998~2012), 사회조사 결과

■ 고용과 소득불안정, 경제 및 양육부담 등 사회경제요인으로 만혼화 및 혼인기피 현상 증대

○ 남성의 초혼연령은 27.8세(1990년)에서 32.2세(2013년)로, 여성은 24.8세에서 29.6세로 각각 4.4세와 4.8세 상승(통계청, 1990; 통계청, 2013)³⁾

■ 출산수준은 산업화 및 도시화, 사망수준 저하 등 생활수준 향상과 가치관 변화, 양육부담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지속적 감소

○ 합계출산율⁴⁾은 1.57명(1990년)에서 1.19명(2013년)으로 13년 간 24.2% 감소(통계청, 1990; 통계청, 2013)⁵⁾

○ 평균 출생아수⁶⁾는 2.2명(1992년)에서 1.61명(2012년)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인구대체 수준 이하에 달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⁷⁾⁸⁾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7).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3) 통계청(1990, 2013). 인구동태통계연보
 4) 여성 한명이 평생 가임기간 동안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자녀수를 의미함
 5) 통계청(1990, 2013). 국가통계포털 출산동향
 6) 기혼여성이 생애동안 출산한 자녀수를 의미함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2).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
 8)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 가족가치관 및 가족결속력 약화로 인구 천명당 이혼건수는 1.1건(1990년)에서 2.3건(2013년)으로 가족 해체에 심각하게 노출됨

○ 혼인건수 대비 이혼건수의 비율은 11.4%(1990년)에서 35.7%(2013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함(통계청, 1990; 통계청, 2013)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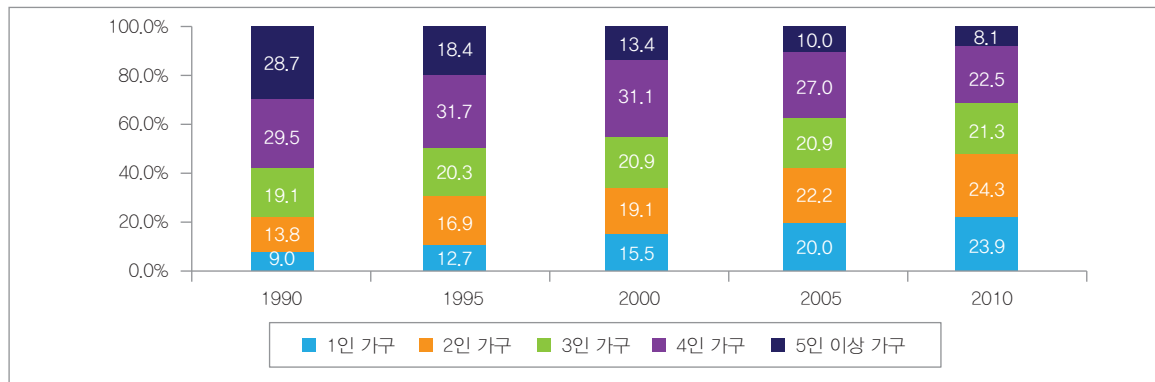
2. 가족구조 변화양상

- 개인주의화, 고령화 및 저출산, 만혼화, 이혼율 증대 등으로 가구규모의 지속적 감소

○ 최근 20년간 1~2인가구의 큰 폭 증가(22.8→48.2%)에 비해, 4~5인 이상 가구의 지속적 감소(58.2%→30.6%)

[그림 3] 가구규모별 변화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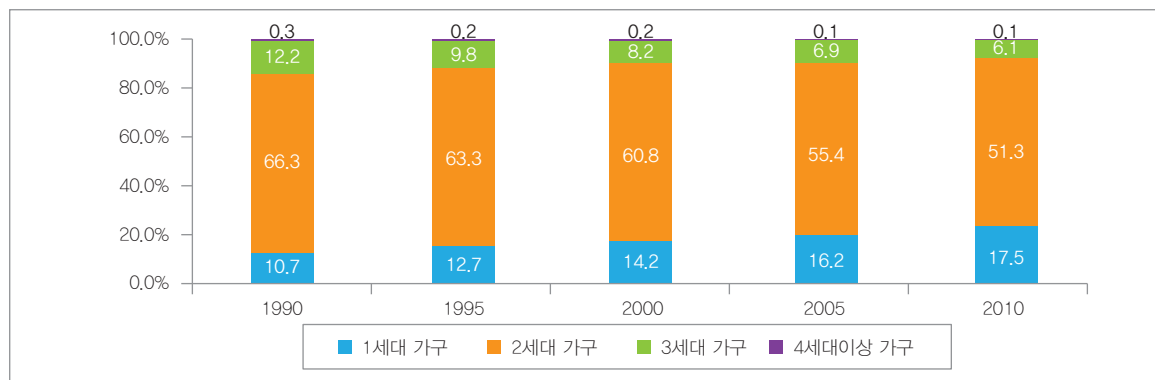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199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 1~2인 가구의 급증과 1세대 확대로 인해 확대가족에서 핵가족화로 이행되는 가족세대의 단순화를 보임

○ 최근 20년간 1세대가구 증가(10.7%→17.5%)에 비해, 2세대(66.3%→51.3%)와 3세대 이상 가구(12.5%→6.2%) 감소

[그림 4] 세대구성별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1) 통계청(199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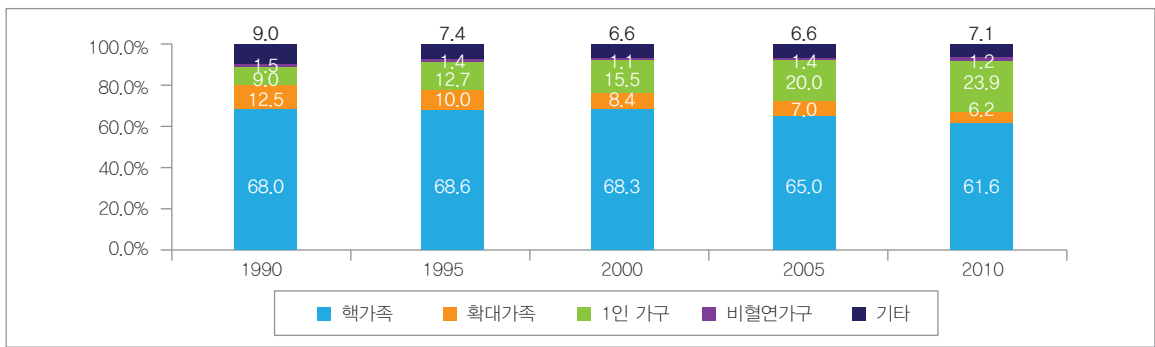
9) 통계청(1990, 2013). 인구동태통계연보

■ 가족유형은 1인 가구 및 1~2세대 중심의 핵가족화 형태에 집중됨

○ 최근 20년간 1인가구는 큰 폭으로 증가(9.0→23.9%),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68.0%→61.6%)은 소폭감소에도 과반수이상 상회

[그림 5] 가족유형별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1) 통계청(199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3. 가족주기변화양상¹⁰⁾

■ 가족형성기와 가족축소기는 늦어지는 반면, 가족확대기는 단축되며, 가족해체기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특성을 보임

○ 만혼화에 따른 가족형성기의 시작시점인 초혼연령은 21.61세(1979년 이전 결혼)에서 25.0세(2000년대 결혼)로 높아짐에 따라 가족형성기 지연

○ 만혼화 및 소자녀관으로 가족확대기간(자녀출산 시작~자녀출산완료)은 3.73년(1979년 이전 결혼)에서 2.37년(2000년대 결혼)으로 단축

○ 자녀의 만혼화 및 결혼기피로 가족축소 시작 및 완료시 연령이 각각 4.7세와 4.4세 늘어남(1979년 이전과 2000년대 차이)

○ 평균수명 연장으로 가족해체 시작 및 완료시 연령이 각각 9.8세와 12.5세 늘어남(1979년 이전과 2000년대 차이)

〈표 1〉 가족주기 각 단계의 시작 및 종결당시 기혼여성의 평균연령

(단위: 세)

초혼연도	초혼연령	첫째아 출산	막내아 출산	자녀결혼시작	자녀결혼완료	남편사망	본인사망
1979년 이전	21.61	23.14	26.87	54.78	59.47	76.14	78.10
1980~1989년	23.42	24.84	28.17	56.73	60.01	85.19	88.15
1990~1999년	25.00	26.57	29.78	58.18	61.51	85.56	89.38
2000~2012년	27.24	28.70	31.07	59.45	63.90	85.92	90.62

주: 1) 분석대상은 15~64세 이하 기혼여성 중 초혼 유배우이거나 사별이면서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임
2) 초혼연도별로 가족주기 단계별 시작과 종료시점을 결정하는 가족생애사건 당시 기혼여성의 연령을 제시한 것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10) 가족형성기는 결혼~첫째아 출산, 가족확대기는 첫째아 출산~막내아 출산, 가족축소기는 자녀결혼시작~자녀결혼 완료, 가족해체기는 배우자 사망~부인 본인사망까지의 기간을 말함

- 젊은 부부만이 보내는 신혼기간은 줄어드나 노인부부가 함께 보내는 기간이 늘어나 노후의 부부관계가 중요함을 의미
 - 젊은 부부만이 보내는 신혼기간(가족형성~첫째아 출산전)은 1.53년(1979년 이전 결혼)에서 1.46년(2000년대 결혼)으로 줄어드는 데 비해, 노인부부가 함께 보내는 기간(자녀결혼 후~배우자 사망)은 16.67년(1979년 이전 결혼)에서 22.02년(2000년대 결혼)으로 길어짐
- 자녀수 감소로 자녀양육기간은 점차 짧아지나 성인자녀의 독립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성인자녀 부양 및 관계 개선 등 정책적 대응 필요
 - 소자녀관 정착으로 자녀수 감소에 따라 자녀양육 기간은 36.33년(1979년 이전 결혼)에서 35.20년(2000년대 결혼)으로 감소

〈표 2〉 가족주기 중 부부만의 기간, 자녀양육기간 및 여자 노인만의 기간 (단위: 년)

초혼연도	신혼부부 생활기간 ¹⁾	자녀 양육기간 ²⁾	노인생활기간 ³⁾		
			소계	노인부부만의 생활기간	여자노인만의 생활기간
1979년 이전	1.53	36.33	18.63	16.67	1.96
1980~1989년	1.42	35.17	28.14	25.18	2.96
1990~1999년	1.57	34.94	27.87	24.05	3.82
2000~2009년	1.46	35.20	26.72	22.02	4.70

주: 1) 신혼부부 생활기간은 가족형성부터 첫째아 출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함
 2) 자녀양육기간은 첫째 자녀출산부터 자녀결혼 완료까지의 기간을 말함
 3) 노인생활기간은 자녀결혼 완료부터 부부 모두 사망하기까지의 기간을 말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4. 부부관계 및 가족부양기능 변화 양상

- 부부역할에 대한 태도는 전통적 역할관(남편은 경제부양자, 부인은 양육·가사자)이 높은 편이나, 점차 양성평등적 역할관(공평한 역할분담)이 증가하여 향후 가정 내 부부역할 변화 예고
 - 부부역할에 대한 태도는 남편은 돈을 벌고, 부인은 양육·가사를 맡는다는 의견은 38.6%(2003년)에서 40.2%(2009년)로 증가
 - 맞벌이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부인이 양육·가사를 맡아야 한다는 견해는 52.0%(2003년)에서 44.2%(2009년)로 다소 감소, 남편과 부인 중 집에 있는 사람이 맡는다는 포함하여 공평한 가사분담은 7.6%에서 14.1%로 상승

〈표 3〉 가족 내 부부역할에 대한 태도 변화

(단위: %)

구분	① 남편은 돈을 벌고, 부인은 양육·가사를 맡음 ② 남편·부인 모두 돈을 벌며, 부인이 주로 양육·가사를 맡음 ③ 남편·부인 모두 돈을 벌며, 남편이 주로 양육·가사를 맡음 ④ 남편·부인 모두 돈을 벌며, 남편과 부인이 반씩 양육·가사를 맡음 ⑤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부인이 주로 양육·가사를 맡음 ⑥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남편이 주로 양육·가사를 맡음 ⑦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남편과 부인이 반씩 양육·가사를 맡음 ⑧ 남편과 부인 중 집에 있는 사람이 주로 양육·가사를 맡음								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003	38.6	33.6	0.6	4.2	18.4	0.7	2.4	1.4	100.0
2006	29.7	32.2	0.6	7.4	24.2	0.7	3.9	1.3	100.0
2009	40.2	33.4	0.8	5.9	10.8	0.6	2.4	5.8	100.0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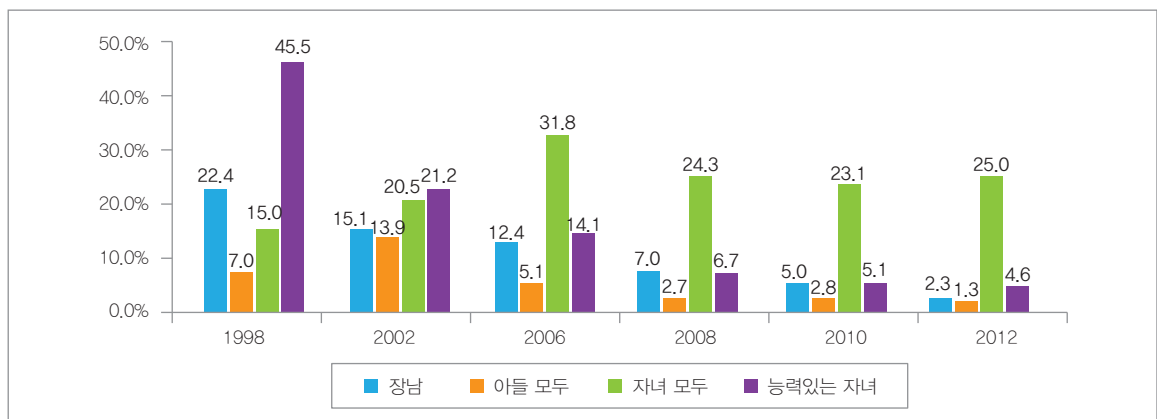
■ 가족부양관은 가족중심에서 스스로 해결 및 사회책임 등이 높고, 부양책임자로 장남 및 아들 중심에서 모든 자녀로 인식 확대, 부양의 사회화에 대한 태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족부양 기능 약화 반증

○ 가족부양관은 가족책임(89.9%→33.2%)에서 스스로 해결 및 사회책임(10.1%→66.8%)으로 인식 전환 (통계청, 1998; 통계청, 2012)¹¹⁾

○ 부모부양책임자는 가족 중 능력 있는 자녀 또는 장남 및 아들(74.9%→8.2%)에서 모든 자녀(15.0%→25.0%)로 변화

[그림 6] 가족 중 부모부양 책임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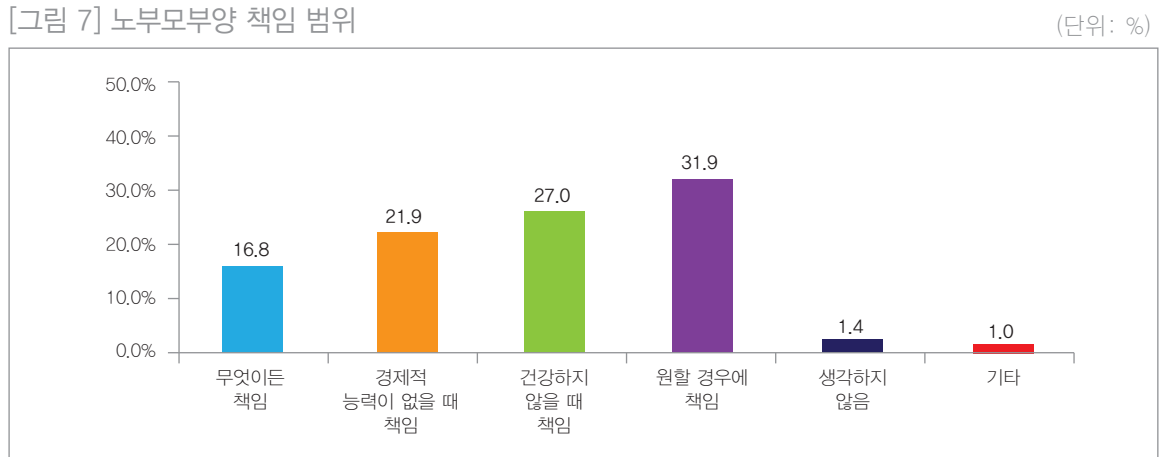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1998~2012), 사회조사결과

11) 통계청(1998, 2012), 사회조사결과

■ 노부모 부양책임 범위는 전반적인 책임보다 경제 및 건강악화 등 필요에 의한 책임 선호

○ 노부모 부양책임은 무엇이든 책임진다가 16.8%,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 건강하지 않을 때, 부모가 원할 때 책임진다를 합친 비율은 80.8% 분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가족변화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5. 정책함의

■ 가족변화를 고려한 정책기반 모색

- 1인가구 및 이혼가족 등 구조적 취약가족의 증가를 고려하여 부부중심의 보편적 가족형태 인식 지양, 가족의 다양성을 포용·수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1~2인가구 급증과 1세대 중심의 핵가족화에 따른 영향으로 가족유형이 다양화되면서 가족의 다양한 가치관과 욕구를 인정하고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선택권 확대
- 소가족·핵가족화 및 맞벌이가족 증가 등으로 가족돌봄 기능 공백이 대두되면서 급변하는 가족변화를 반영한 보편적 양육자 모델(the universal caregiver model)¹²⁾로 전환과 함께 가족양육권 및 노동권을 보장하는 성 평등적 정책 확대

■ 가족주기 단계별로 차별화된 정책 마련

- 가족주기 변화의 두드러진 특징은 가족주기 전기단계(가족형성기~가족축소기)는 단축되는 반면, 가족주기의 후기단계(가족축소기~가족해체기)는 점차 연장되는 추세임
 - 가족주기 단계별 복지욕구를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 마련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가족형성기 및 후기단계에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 높게 설정

12) 남녀 모두 일에 참여하고 양육자로서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인정받는 모델을 말함(Fraser, 1994)

- 만혼화로 성인자녀의 독립시기가 늦어지고 부모와 함께 지내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성인자녀와 노부모 간에 새로운 관계 모색이 요구됨
 - 올바른 노부모-성인자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일방적인 의존적 관계에서 탈피하여 독립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관계 확립 필요

■ 사회변화에 신축적인 부부관계 확립

- 맞벌이 증가로 부부간 성역할분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부관계는 전통적인 가치관에 지배를 받아 사회변화에 신축적 대응이 어려움
- 양성평등적 부부관계 모색을 위해 가부장적 가족문화를 개선하고 가족유형 및 가족주기별로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모델 발굴 · 보급

■ 가족결속력 및 부양기능 강화

- 세대 간 가족부양관의 약화와 함께 소가족화 ·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가족부양 체계의 불안정 현상 가속화
- 소가족 · 핵가족시대에 가족부양 환경기반 마련, 이를 위해 가족결속력 강화를 위한 가족관계 향상, 돌봄의 성별 공유 인식 확대 등 바람직한 가족돌봄 문화 정착
- 가족부양기능의 급진적 사회화에 따른 가족과 사회, 정부 간 바람직한 가족부양 분담방안 모색

집필자 | 김유경 (사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문의 | 02-380-8235

발행인 | 최병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2-705)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 TEL 02)380-8000 | FAX 02)352-9129 |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